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힘

서윤석(68)

워싱턴 한글학교연합회(김선화 회장)의 어린이 글짓기대회에서 이것이 이번 백일장 제목이다. 수도 워싱턴 지역에서는 부모들의 노력과 주미 한국대사관 하의 교육원, 영사관의 협조와 여러 한글학교, 각 종교단체, 문인회가 협조하여 이 행사를 주관한다. 교포 어린이를 위하여 매년 두번씩 치루는데 봄철에는 시 낭송대회를 실시하고 가을에는 글짓기 대회를 한다.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다. 각 도시마다 규모가 다른 비슷한 행사가 있겠지만 수도 워싱턴지역에서는 지난 주(10월 29일) 행사에 약 2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백일장의 경우는 원고지에 7-장 이상의 분량을 쓰지만 다른 레벨에서는 편지쓰기, 글쓰기는 여러 학년별로 구분에 따라서 써서 제출했다. 글의 내용이 독자에게 얼마나 감동적으로 느끼게 하는가, 띄어쓰기, 철자법이 정확한가, 글의 시작과 본론, 결론을 짓는 기본 흐름이 잘 되었는가를 심사 기준으로 검사하고 한 작품을 여러심사위원들이 원고를 돌려보면서 점수를 적는다. 대회 관계자는 모든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해서 나누면 그 학생들의 평균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 평균점수로 등수가 결정된다. 백일장 장원상에 정예인이라는 학생이 뽑혔다. 총평균점이 70점이상이면 최소한 장려상, 더 좋으면 우수상 으로 상을 수여했다. 이번에 응모자 가운데 상을 못 받았어도 영어권의 어린이들에게는 외국어라고 할 수 있는 한글로 이렇게 글을 써서 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장한 일이다. 이민 생활에서 자식교육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부모의 모습과 열심히 따라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진지하고 열성적이다.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한분한분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필자가 자식들을 키울때 미쳐 못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훌륭한가! 1492년 컬럽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하기 46년 전인 1446년, 즉 세종 28년에 반포된 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이다. 그 후 수백년 한문과 성리학이 판치던 시절에 언문으로 무시당하다가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를 사랑 하고 독립을 위하여 애쓰던 사회장으로 외국인 묘지에 87세에 묻힌 호머 할버트Homer Hulbert(1864-1949)선교사 님과 고종시대의 그의 제자인 주시경(1876- 1914) 님에 의하여 한글은 비로서 보편적으로 가로쓰기등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정리되었다. 갑신정변의 실패 후 삼족의 멸함을 당했다가 망명 10년 후 미국시민으로 귀국한 서재필박사(1864- 1951)가 사재를 털어서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신문(1896)을 발행 할 때 띄어 쓰기도 시작했다고 한다. 이인직의 혈의 누, 이광수의 소설 무정, 최남선의 시, 해에서 소년에게 등 여러 문학작품이 한글로 창작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글이 비로서 우리 일상 문화활동에 밑거름이 되었다. 쉽게 배우고 읽혀서 한글로 편지를 쓰기시작했고 거의 모든사람들의 소통

수단이 되었다.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이민온 한국인의 어린이들 글중에 백일장의 주제인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근래에 신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큰 힘 중의 하나가 한글이라고 지적한 학생이 있는지 눈여겨 보았다. 566년전의 창조를 위하여 쏟았던 세종대왕의 열정과 불쌍한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 리더쉽이 바로 오늘날 한국을 발전할 수 있었던 큰 힘이 아니었겠는가 하며 생각한다. 특히 훈민정음 창조한 후에도 명나라의 눈치를 보던 최항의 무리들 같은 신하들을 설득하고 필요에 의하여 처벌했다가도 용서했던 당시 기록을 우리는 이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방 후 6.25를 겪고 나서 정부에서 차츰 정세가 안정이 되자 1956년 10월9일을 한글의 날로 정할 때 최규남 문교부장관 주관하에 발족된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번역한 세종대왕장헌실록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다.

다음은 1446년 9월 집현전 대제학이었던 정인지(1396-1478)가 쓴 기록이다.

<재해년 겨울에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를 간략하게 들어보이고 명칭을 훈민정음訓民正音 이라고 하였다. 물건의 형상을 본따서 글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하고, 소리에 인하여 음音은 칠조 음양에 합하여 천, 지, 인 삼극의 뜻과 음양 이기의 정묘함이 구비 포괄되지 않은 것이 없어서, 28자로서 전환하여 다함이 없이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자세하면서도 통달하게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 있으며, 이로서 송사를 청단하면 그 실정을 알아낼 수 있게 된다. 자운字韻은 청탁淸濁을 능히 분별할 수가 있고, 악가樂歌는 율려律呂가 능히 화합할 수가 있으므로 사용하여 구비하지 않은 적이 없고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은 곳이 없어서, 비록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이든지, 닭의 울음소리나 개짓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해 쓸 수가 있게 되었다. 마침내 해석을 상세히 하여 여러사람에게 이해하라고 명하시니, 이제 신臣이 집현전 응교 최항, 부교리 박팽년과 신숙주,수찬 성삼문, 돈녕부 주부 강희안, 행집현전 부수찬 이 계, 이선로등과 더불어 삼가 모든 해석과 법례를 지어 그 경개梗槪를 서술하여, 이를 본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연원淵源의 정밀한 뜻이 오묘한 것은 신들이 능히 발휘할 수 없는 바이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에서 낳으신 성인聖人으로서 제도와 시설이 백대의 제왕보다 뛰어나시어, 정음正音의 제작은 전대의 것을 본받은 바도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지극한 이치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인간행위의 사심으로 된 것이 아니다. 대체로 동방에 나라가 있은 지가 오래 되지않은 것은 아니나,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는 도리를 깨달아 이것을 실지로 시행하여 성공시키는 큰 지혜는 대개 오늘날에 기다리고 있을 것인져. >하다.

*세종 장헌 대왕 실록 제 113권 28년(1446) 9월, 명나라 正統 11년

이런 귀중한 우리 한글을 실용하지 못하고 우리 민족은 불행하게도 나라마저 1910년에 주권을 일본에 빼앗겼다. 제국주의 일본이 2차대전을 치루면서 강요된 창씨 개명과 한국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강행했을 때 한글도 사라질 위기를 맞았었다. 일본어만을 사용해야되는 참으로 처참한 시점이었다. 그 한 예로 김상필 저 <오늘을 사는 생명>을 참고하면 1945년 함경남도 홍원출신 함흥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인 박영희의 일기장으로 시작한 서울의 조선어학회사건은 한글말살을 시도한 위협이었다. 다행히 1945년 해방이 되어 풀려나올 때까지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정태진, 김도연, 이 인 님을 비롯하여 많은 한글 학자들이 형무소에 감금되고 복역하고 조사를 받고 시달렸다. 이런 역사적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런 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보존된 것이 우리 한글임을 기억하여야한다.

이번에 글짓기의 주 제목으로 워싱턴 문인회 (김미영 시인, 정해선 시인)에서 제시한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힘'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566년전에 만들어진 한글이 현재의 컴퓨터와 아이폰에서 쉽게 사용할 수있다는 사실이다. 그 얼마나 미래를 내다본 훌륭한 과학적이고 언어학적인 발명이냐! 이번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글 속에서 이런 내용을 찾아보려는 것은 다소 지나친 욕심이었지만 그래도 한 두 명이 비슷한 글을 썼고 그 중 한 명이 장원에 뽑혔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흔히 보는 BTS자랑, 싸이 춤, 한국 음식 자랑, 한국 의상자랑, 지하철, 빌딩자랑, 가옥자랑들이었다. 이 백일장의 주 제목과는 관계가 없이 학교와 부모한테서 평소 이번 대회를 위하여 배운 일상적인 내용인 것 같았으며 주제에 대한 정확한 답은 못되었음이 아쉽다.

서울 광화문에 세종대왕의 동상이 세워졌고, 세종문화회관, 세종기념사업회(전 박종국회장), 세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문화단체가 국내외로 여러곳에 있다. 영어로 훈민정음 소개 책을 발간한 George Washington대학 언어학자 김영기교수(소설가 한무숙 따님)가 있고, 시카고 세종문화회(75년 졸업 Dr.Lucy Park박종희 Illinois의대교수) 영어 평시조 짓기 행사를 하는 교포단체도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한다.

한글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많은 외국사람들이 배우고 있다 그중 한 예로 지난 한글의 날 이곳 워싱턴 시낭송모임에 참여한 전 주한 미국대사(2008-2012) Kathleen Stephens 심은경은 유창한 고급스러운 한글말로 축사를 하고 노산 이은상 시인의 시 '나도 같이 시를 쓴다. I will write a poem too. '를 한, 영으로 낭송하고 한글로 자신의 책을 발간한 것을 알고 우리들을 놀라게 했다.

대한민국은 6.25사변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 시작하여 윤보선, 최규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현 윤석열 정부에 까지 오게

되었다. 비록 독재와 군부, 우파, 좌파의 갈등을 거치고 무서운 6.25전쟁을 겪으면서도 목숨의 희생은 많았지만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도 남한만에서라도 5천년 우리 역사에 처음 배고픔을 해결했다. 또 경제력이 세계 10대 국으로 성장했다. 자랑스러운 우리 운동선수들의 옷과 모자에 한글로 쓰인 회사광고들이 보인다. 뿐만아니라 세계 대 도시의 거리에 한글로 쓰인 간판도 보이고 전통 음악, 영화, 예술방면에서도 한국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또 아리랑이 소개되는 기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현재의 문예부흥을 누릴 수 있는 것은 566년전 세종시대에 창조된 한글의 힘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며칠 후 이 글짓기 대회에 수상한 어린들에게 심사평을 할 시간이 있어서 나는 설명했다. 첫째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잘 배우고 또 제 2언어 한글도 배우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과 같다. 둘째로 어린이들이 성장하여 무슨 직업을 갖더라고 자신의 이웃을 위하여 그들의 불편한 점, 아픈 점을 보살피고져 하는 마음을 자져라. 셋째 자라서 사업가, 의사, 변호사, 은행가, 예술가, 문학가, 그 무엇이 되던지 자신의 이웃을 위하여 뜻한 바를 정열적으로 연구하고 창조하는 세종대와과 같은 인물로 자라나기를 당부했다. 그의 행적을 조사해보면 당시 농업, 역사, 음악, 과학등 우리나라 문화의 문예부흥시대를 이룩한 주인공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참가한 어린이 모두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매년 10월 9일 한글의 날에 우리가 학생 때 부르는최현배 작사, 박태현 작곡의 노래를 1절만 소개하면서 이 글울 맺는다.

한글의 날

강산도 빼어 났다 배달의 나라
긴 역사 오랜 전통 지녀온 겨래
거룩한 세종대왕 한글을 펴시니
새 세상 밝혀주는 해가 돋았네
한글은 우리 자랑 문화의 터전
이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